

케리그마 언어사용을 통한 해결중심치료의 적용

장명수*

국문초록

인간은 언어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영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언어는 사람다움을 드러내고 사람사이의 관계와 성장 그리고 갈등과 상처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와 조직은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 내담자의 심리적인 문제는 언어생활로 야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언어의 효과적인 기법과 활용방안은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소고에서는 해결중심치료의 언어사용의 효율성을 도구로 하여 케리그마 언어를 적절하게 접목하여 내담자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개인의 전인적 성장은 심리적인 건강성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문제해결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으나 언어를 활용하면서 복음적 언어 개발과 함께 언어의 간결성과 효율성을 장점으로 하는 해결중심치료의 접목은 기독교 상담 방안의 하나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언어의 치료적인 개발은 상담자의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고 상담사역의 활성화에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케리그마 언어를 통한 상담적 접근을 통해 내담자의 전인적 성장에 미력하나마 작은 통로가 되어가고자 한다.

중심단어 : 언어기능, 케리그마 언어, 해결중심치료, 상담언어, 기독교상담

• 논문 투고일: 2014년 10월 14일

• 논문 수정일: 2014년 11월 6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11월 10일

*백석대학교, 이 논문은 2014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I. 여는 글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며 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표현하며 살아간다. 인간은 언어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고 언어사용의 역량에 따라 삶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질 수 있다. 언어가 가지는 다양한 기능에 따라 사회생활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언어문화의 양태를 드러낸다.¹⁾ 또한 인간은 개인과 가정생활을 통하여 언어와 관련되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반면에 언어로 야기된 심각한 상처를 받기도 한다. 다양한 상담의 이론들도 언어를 통하여 정립하게 된다. 언어가 미치는 많은 영향들을 고려하며 문제를 가진 내담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언어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사회구성주의 개념에 입각한 해결중심치료는 언어가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언어의 간결성과 효과에 기초하여 질문기법들을 개발하였다. 문제를 가진 내담자는 문제 중심의 사고와 문제의 한 가운데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중심의 사고를 해결중심의 사고로 그 언어적 기법과 효율성을 투사할 때 의외로 사람들의 문제는 다른 시각에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해결중심적 접근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한계를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을 현재 중심으로 보는 것과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점, 그리고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치지 못하는 제한성이 따라온다. 무엇보다 내담자의 건강성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전인적인 회복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케리그마 언어개발을 통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복음적 메시지에 접하게 하고 일반 상담적 건강성 회복과 함께 전인성에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수 있다. 복음의 능력이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되며 복음적 언어를 합리적인 상담언어로 접목할 때 내담자는 목회적 관점에서 회

1) 임요한, 『구약주해와 텍스트언어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80.

복의 은혜를 입는데 크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과 효율성을 상담적 가치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복음적 선포를 내포하는 케리그마 언어를 상담 이론과 접목하여 그 지평을 확장할 수 있으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사역에 또 다른 의미의 활로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사회적인 상황이나 교회내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으며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인간관계에서 야기되는 언어사용의 문제는 정신적, 영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크다 하겠다. 인간의 언어가 가지는 다양성과 효율성을 상담이론과 복음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유용하게 접목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지향으로 이끌어 내는데 본 연구의 초점이 있다.

II. 펴는 글

1. 언어에 대한 이해

언어는 세계를 형상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언어는 사람의 지각을 구성하고, 내면의 세계를 창조해 내게 한다. 언어는 사람들의 사고를 말하게 하는 매체가 된다.²⁾ 구성주의(constructivism)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사고와 사회활동의 전제 조건으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경험을 의미있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타인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가능하다.³⁾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동물과 뚜렷이 구별되는 것 하나가 바로 언어

2) Gail E. Myers & Michele T. Myers, *Dynamics of Human Communication*, 임철성 역,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서울: 집문당, 1997), 151.

3) G. Miller, *Becoming Miracle Workers* (New York: Aldine De Gruyter, 1997), 21.

의 문제이다.⁴⁾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진술을 만들고 이것들을 여러 가지 발화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데 있어 매우 독창적이다. 인간은 또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생각이란 곧 자기에게 하는 언어가 되고, 이 언어가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기 이전에는 경험의 의미는 없게 된다.⁵⁾ 언어를 통하여 삶을 살아가고 언어를 통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은 언어와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다. Wittgenstein은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이다”⁶⁾라고 하면서 언어가 어떤 생각이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언어는 사람이 알고 있는 세계를 형상화시켜 주는 막강한 도구이다. 언어를 상징화함으로 언어가 나타내는 상징의 세계는 단지 경험의 세계를 기술한 것 이상이 된다. 언어를 통하여 받게 되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구분하여 인간관계나 사회구조 안에 어떤 결과를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언어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언어의 기능

언어는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전달 기능을 가진 기호체계이다.⁷⁾ 인간의 언어활동은 화자와 청자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행위에서 잘 드러난다. Roman Jakobson은 언어의 기능을 여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⁸⁾ 본 연구에서는 2가지 기능을 추가하여 언어의 능력을 확

4) 김진우, 『인간과 언어』 (서울: 집문당, 1996), 15.

5) Peter Farb, *Word Play*, 이기동 외 공역, 『말 그 모습과 쓰임』 (서울: 한국문화사, 1997), 195.

6) Farb, *Word Play*, 196.

7) 이철수·김준기, 『언어와 언어학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000), 17.

8) O. Reboul, *Langage et Ideologie*, 홍재성·권오룡 역, 『언어와 이데올로기』 (서울: 역사비평사, 1994), 53.

장해 보려고 한다.

첫째, 언어의 지시적 기능이란 정보를 전달하고 설명하고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능은 지시물과 관련되며 인지적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둘째, 표현적 기능은 고함이나 놀라움, 기쁨의 탄성등과 같이 발화자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인간은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구현해 나간다. 셋째, 선동적 기능은 타인으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한다. 명령, 충고, 부탁, 거절, 금지의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넷째, 시적 기능은 문장의 음악성과 이미지가 드러나며 아름다움과 추함의 문제가 드러난다. 다섯째, 친교적 기능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끊는 기능으로 사용되며 사회 안의 예의범절 속에 축약되어 있다. 여섯째, 메타 언어적 기능은 약화와 관련된 기능이다. 의사소통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약화를 의사소통 행위 자체와 관련지을 때마다 메타 언어적 기능이 실행된다.

위의 여섯 가지 언어 기능에 덧붙여 언어가 가지는 대인관계적 영향력에 근거하여 치유적 기능과 박해적 기능을 첨가하고자 한다. 일곱째, 치유적 기능이란 대인 관계적 구조 안에서 언어가 화자로부터 청자에게 들리지게 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문제를 언어화하는 것은 치료에 있어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자폐적 소외로부터 사람을 이끌어 내게 된다.⁹⁾ 언어는 생명력을 가지고 전달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게 된다. 여덟째, 박해적 기능은 언어가 가지는 부정적 영향을 의미한다. 언어가 타인의 감정을 억압하고, 표현을 제한시키며, 이성과 정서에 해악적인 작용을 하는 일체의 요소들을 일컫는다.

이와 같이 언어가 가지는 복합적인 기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언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

9) P. D. Couture & R. J. Hunter, *Pastoral Care and Social Conflict*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5), 26.

의 메시지로 혹은 회복의 언어로 작용하기도 한다. 복음의 언어로서 케리그마 언어는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자기 정체성과 내면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인간의 궁극적인 변화로 이끌어 내게 한다.

3. 케리그마(Kerygma)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이해

1) 케리그마의 내용

언어의 기능과 관련하여 케리그마는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사용된 언어이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의 내용, 선포행위, 선포의 직분도 케리그마라 불리워진다. 케리그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공개적인 선포로서 초대 교회는 그리스도 선포(케리그마)로부터 출발한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케리그마가 선포되는 곳에서 시작된다.”¹⁰⁾ Thomas Oden은 케리그마는 말씀의 선포를 의미하며 신약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을 선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¹¹⁾

케리그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말씀의 선포는 한 생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에 기초하여 인간 존재의 회복과 치유와 구원과 연결되는 말씀의 전달이 된다. 따라서 케리그마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생명의 선포요, 인간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는 희망의 언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언어를 도구로 하는 케리그마

언어의 정보 전달 기능은 케리그마가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데 필수적

10) 성종현, 『신약총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2), 113.

11) Thomas, C. Oden, *Kerygma and Counseling*. 이기춘·김성민 역, 『케리그마와 상담』 (서울: 전방사, 1983), 175.

인 요인이 된다. 어둠의 세상 가운데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케리그마는 언어라는 도구를 통하여 그 기능을 수행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언어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복음의 소식도 언어를 통해 전달되어진다. 언어는 전달의 기능을 할 뿐 아니라 그것이 가진 표현적 기능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 나름대로 크고 작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케리그마는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그 자체가 가진 능력과 생명력을 사람들에게 역사하게 된다.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케리그마가 전달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변화와 개혁과 치유와 성장을 이루게 된다.

3)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에 대한 이해

(1)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의 개념

케리그마 언어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언어라면,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란 심리적, 영적 문제를 소유한 사람에게 공감적 관계와 대화를 통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 소식을 전하여 문제해결과 아울러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회복하는데 중심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일컫는다.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는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내담자에게 전하는 생명의 언어요, 희망의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인도하는 희망의 언어이다.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다.¹²⁾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수난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소식이 담긴 케리그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성취되어 간다.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는 그 사건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언어라는 매체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신약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를 사용

12) 박윤만, 『신약성경 언어의 의사소통기술』 (서울: 도서출판 그리스심, 2013), 11.

하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구원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살리는 케리그마요, 생명의 언어가 되었다.¹³⁾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는 인간의 절망을 이해하고 절망 너머에 있는 희망을 발견하는 언어가 된다. 문제와 절망을 만나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언어가 들려지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회복의 말씀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 케리그마 언어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2)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와 성령의 역사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언어요, 문제와 절망에 처한 인간에게 희망의 새 삶을 불러일으키는 언어이며, 회복과 치유를 통하여 전인적인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언어이다.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는 생명을 수여하는 언어이며 심령을 치유하는 언어이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보내시는 성령은 또 다른 상담자로 표현되고 있다. 성령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παράκλητος)는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의 곁에서 그 사람을 도우며, 감동시키며, 새롭게 하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영이다.¹⁴⁾

내담자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혜와 경험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죄에 맞서 이기게 하고,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며,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신다.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는 내담자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을 받아들일도록 유도하는 소중한 통로역할을 할 수 있다. 성령의 역사는 상담

13)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야기(마8장),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든 가나안여인의 이야기(마15장),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막2장),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야기(막5장),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눅 5장), 삭개오의 변화 이야기(눅19장) 등 예수님의 상담적 케리그마를 통해 치료와 문제 해결을 받은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14) Michael L. Brown, *Israel's Divine Healer*, 김진섭 역, 『구약의 치유신학』(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0), 451.

언어가 내담자의 내면 안에서 더욱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조명하는 일을 하게 한다.

(3) 상담적 케리그마언어의 내용들

① 존재의 언어¹⁵⁾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는 인간의 본질에 관계된 언어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근본을 회상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언어가 된다. 내담자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면서 삶의 의미를 혼돈하고 방황하게 된다. 여기에서 존재의 언어란 내담자의 실존을 회복하는데 사용되는 언어를 말한다. 이것은 현재 자신의 위치가 인생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알려주는 언어요, 실존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언어이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면의 소리를 들어 볼 수 있도록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등과 같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확인시키는 언어들이다. 인간의 진정한 자기(self)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의 실존적 차원의 관계를 유지시킴으로써 존재하게 된다.¹⁶⁾

존재의 언어는 인간의 실존과 관련된 언어이며, 소외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언어이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소외로 참가치를 상실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다. 하나님은 아담을 향하여 자기 실존의 위치를 찾도록 존재의 언어를 사용하셨다.

15) 존재의 언어란 내담자에게 자신의 실존에 대하여 돌이켜 볼 수 있도록 내담자를 촉구하는 언어를 말한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올바르게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등과 같이 내담자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언어들을 일컫는 말이다.

16) Andrew D. Lester, *Hope in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신현복 역, 『희망의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31.

② 공감의 언어

공감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과 서로 접촉하면서 상호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격간의 상호 작용을 규정하는 용어이다.¹⁷⁾ 공감이란 말은 상대방의 감정에 깊이 들어가서 두 인격이 서로 동일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공감은 타인에게 사랑과 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공감은 우리 자신에게 타인의 언어로 말하고, 타인의 몸짓을 해석하며, 타인의 이미지를 이해하도록 해준다.¹⁸⁾ 공감의 언어가 소통의 장을 극복하고 서로 하나되게 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간의 공감적 관계가 이루어짐이요, 인간과 인간 상호간의 공감적 내용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신성 안에서 서로 다른 위격으로 공감을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서로 공감하기를 원하신다.¹⁹⁾

르네상스기에 베네딕트 수도사들은 청각장애인들과 공감적 삶을 살기 위하여 청각 장애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되었다. 수도사들은 수도원에 함께 살면서 침묵할 것을 맹세한다. 그들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비언어적 도구를 개발한 후에, 일상적인 인간의 소통이 언어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²⁰⁾ 수도사들의 강렬한 공감적 삶을 통해서 듣기와 말하기에 장애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살롬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하셨다. 공감의 언어는 사

17) 오성춘, “목회상담의 기초로서 예수님의 참여적 공감”,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와 신학』 제22집(1990): 283.

18) Quentin J. Schultze, *Communicating for Life*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0), 35.

19) Schultze, *Communicating for Life*, 36.

20) Marilyn Daniels, *Benedictine Roots in the Development of Deaf Education: Listening with the Heart* (Westport, CT.: Bergin and Garvey, 1997), 15.

람들을 고독의 아픔에서 이끌어내어 평안이 넘쳐흐르는 생수의 강물로 들어가게 한다.²¹⁾

③ 용서의 언어

인류의 삶에 있어서 용서의 가치는 보편적이며 용서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 용서는 아주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지상사역에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²²⁾ 하나님은 용서 없이는 인간적일 수 없고, 용서와 함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기에 용서를 명령하셨다. 사람은 용서할 때, 자신의 상처나 타인이 남긴 자국들을 똑바로 직면할 수 있게 된다. 용서하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²³⁾ 용서는 과거의 사건들과 연결되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풀어준다. 용서는 긍정적인 자부심의 표시이며 요소이기도 하다. 용서는 적극적인 자존감의 뿌리이며 또 성장 요인이 된다. 용서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치유는 시간을 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용서의 언어를 통하여 한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고, 억눌림에서 자유하게 하며, 상호 관계에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게 된다. 자기 안에 숨어있는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을 용서의 언어를 통해 해결하게 될 때 새로운 성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④ 사랑의 언어

우리가 타인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쌍방간의 대화는 이루어진다. 자기 중심성과 타자 중심성 사이의 갈등이 결국 사랑의 언어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²⁴⁾ 사랑은 자기중

21) Schultze, *Communicating for Life*, 37.

22) W. A. Meninger, *The Process of Forgiveness* (New York: The Continuum Publishing Company, 1996), 16.

23) Meninger, *The Process of Forgiveness*, 34.

24) Carolyn Gratton, *The Art of Spiritual Guidance* (New York: Crossroad, 1997), 158.

심성을 버리는 것이며 타인의 존재에 기초하여 타인에게 관심을 옮기는 것이다. 또한 사랑은 합리적인 자기 관심의 제약을 받으며 자기희생을 요구하게 된다. 명백하게도 사랑에는 이기심을 버려야만 되는 조건이 있다.²⁵⁾

하나님은 인간을 조건없이 사랑하신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조건없이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신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된다. 자신에 대한 사랑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타인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없다.²⁶⁾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자기감 혹은 자의식이 형성되어 있을 때에 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상담자는 내담자의 기본적인 조건이나 상태와 관계없이 그를 긍정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사랑의 언어는 곧 조건없는 인정과 자비에 기초한 허용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깨어진 관계나 인격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

⑤ 은혜의 언어

케리그마가 생명의 구원을 목적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 은혜의 언어는 곧 내담자에게 복음의 언어요 생명의 언어이기도 하다.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에 넘치는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²⁷⁾ 은혜 아래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용적인 사랑이라는 안전한 상황 가운데서 그에게 주어지는 자유를 있는 그대로 행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²⁸⁾ 하나님의 은혜는 내

25) Stephen G. Post, *Spheres of Love* (Dallas, TX.: S.M.U. Press, 1994), 5.

26) Martin Israel, *The Spirit of Counsel* (Wilton, CT.: Morehouse-Barlow Co., 1983), 20.

27) Deborah van Deusen Hunsinger, *Theology & Pastoral Counseling*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Co, 1995), 28.

28) Oden, *Kerygma and Counseling*, 79.

담자로 하여금 현재의 상태로서 존재하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허용 아래에서 내담자가 자기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은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부름을 받고,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자기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4. 해결중심치료의 이해

상담을 통해 인간을 돕는다는 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를 활용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 원리와 방안 가운데 해결중심치료는 핵심적인 복음언어를 상담이라는 틀에 접목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1) 해결중심치료의 이해

해결중심치료는 삶의 문제로 분주한 현대인들에게 시간적인 효율성과 그 접근방법의 단순성으로 인해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되고 있다.²⁹⁾ Shazer와 Insoo Berg가 중심이 되어 20세기 후반에 발전시킨 해결중심치료는 간단하면서도 세련되고 실용적인 치료모델로서 그 효율성이 입증되어왔다. Shazer는 사례들을 반복해서 분석하며 치료모델을 단순화, 실용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해결중심치료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은 직접성과 단순성에 있다.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해결중심치료의 기본 원리와 철학은 내담자가 이미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

29) J. K. Zeig & S. G. Gilligan, *Brief Therapy—Myths, Methods, and Metaphors* (New York, NY.: Brunner/Mazel Publishers, 1990), 4.

한다.³⁰⁾ 해결중심치료의 기본 가정과 철학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병리적인 것 대신에 건강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내담자의 강점, 자원, 건강한 특성을 발견하여 치료에 활용한다. 둘째,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이며 내담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셋째,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이끈다는 신념으로 단순하고 솔직한 의미를 추구한다. 넷째,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를 지향한다. 다섯째, 의미와 경험은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며,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와 해결을 위한 전문가이다.

2) 해결중심치료의 치료 기법과 과정

해결중심치료는 첫 면담에서 내담자들을 만날 때에 각 구성원의 관계 유형을 구분한다. 내담자들이 치료과정에 참여한 동기와 관련하여 고객형, 불평형, 방문형으로 구분하게 된다. Friedman은 주요 기법들이 주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담이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적 대화라고 보고 있다.³¹⁾ 이 기법은 내담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과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치료자와 내담자는 해결방안을 구축해 나가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된다. 내담자는 치료자가 던지는 질문을 통해 치료 목표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주요한 질문 유형에는 예외질문(exception questions), 기적질문(miracle questions), 대처질문(coping questions), 척도질문(scaling questions) 등이 있다. 치료과정에서 해결중심치료는 치료에 참여한 내담자의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에 맞는 접근을 시도한다.³²⁾

30) Matthew D. Selekman, *Pathways to Change*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1993), 7.

31) Steven Friedman, *The New Language of Change*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1993), 7.

32) J. S. Walter & J. F. Peller, *Becoming Solution-Focused in Brief Therapy*, 가족치료연구모임 역, 『단기가족치료- 해결중심으로 되어가기』 (서울: 도서출판 하나의학사, 1996), 72.

(1) 긍정적으로 시작하기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 치료를 위한 준비를 시키고,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설명하게 된다. 가능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며 시작한다.

(2) 구체적인 목표 설정하기

해결중심치료에 있어 목표는 내담자에게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치료 방법이 내담자중심이기 때문에 내담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 해결책 구축하기

이 치료는 효과적인 목표를 찾는 방법이 질문기법에 있다고 믿는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질문이야말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헤어 나와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해결책을 구축하게 한다.³³⁾

(4) 치료 효과의 유지 및 강화하기

치료 과정과 치료 후에 얻은 효과를 내담자가 어떻게 유지하는가 하는 문제는 치료자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³⁴⁾ 치료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추후 면담(follow-up) 과 사후관리(after-care)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종결하기

치료의 종결은 내담자가 해결책을 얻기 위한 궤도에 올랐거나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할 때 이루어진다.

3) 해결중심치료의 언어와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의 비교

언어의 영향력에 대하여 일찍이 Hans Lipps는 “언어의 창조적인 기능

33) Peter Dejong & Insoo Kim Berg, *Interviewing for Solutions*, 허남순 · 노혜련 역, 『해결을 위한 면접』(서울: 학문사, 2000), 42.

34) Walter & Peller, *Becoming Solution-Focused in Brief Therapy*, 212.

곧 일정한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말이 삶을 창조하는 힘을 가졌다. 이것은 곧 현실을 형성하는 말의 힘이다.”³⁵⁾고 주장하였다. 언어 사용의 효율성에 비추어 해결중심이론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기독교상담의 관점에서 이용되는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므로 장단점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해결중심치료의 언어와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의 유사점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두 언어 모두 개인과 가족의 변화를 도모하는 언어라는 점이다.
- ② 문제를 해결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둔 언어이다.
- ③ 긍정적인 철학 위에 기초하고 있어 긍정성을 제공하는 언어이다.
- ④ 개인의 성장을 유도하는 언어이다.
- ⑤ 목적 지향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 ⑥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오며 자신의 내면을 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언어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해결중심치료의 언어와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점도 있다.

- ① 전자가 인간의 건강성을 추구하는 반면, 후자는 인간의 전인성을 추구하는 언어이다.
- ② 전자가 자기중심성이 강한 언어라면, 후자는 타자 중심성이 강한 언어이다.
- ③ 전자가 현재성을 강조하는 언어라면, 후자는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는 언어이다.
- ④ 전자가 인간 중심의 언어라면, 후자는 종교성이 강한 언어이다.
- ⑤ 전자가 결과를 중시하는데 비해, 후자는 과정과 결과를 동일하게 중시하는 언어이다.

결과적으로 해결중심치료는 복잡하고 긴박한 현대사회를 반영하여

35) 이규호, 『말의 힘』 (서울: 제일출판사, 1985), 20.

효율성에 맞춘 상담언어의 기법이라면,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서 한 인간에 대한 참된 회복과 구원과 치유를 위해 적용되어야 할 언어이다.

5.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의 해결중심적 접근

해결중심치료는 구성주의 개념에 근거하여 언어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시간의 간결성과 함께 치료효과의 신속성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를 해결중심적 원리와 틀에 접목하므로 기독교 상담적 장점을 더할 수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해결중심치료의 원리에 근거하여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의 사용이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추론해 볼 수 있다.

내담자 P씨(62세, 여, 권사)는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남편과 사별한지 6개월이 되었으며 과거에도 성격이 예민하고 우울증상이 좀 있었다. 남편과 관계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부터 불안한 마음과 함께 불면증이 더욱 악화되어 약을 복용하여도 잠을 자지 못해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렵고 낮에도 깊이 있는 잠은 오지 않는다. 남편에 대하여 야속한 마음도 많고 평소 서운했던 감정들이 때때로 생각나면서 마음속에 죄책감과 아쉬움이 내담자를 괴롭히기도 하였다. 자녀들이 먼 곳에 살고 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외롭고 괴로워 빨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담자는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무의미하고, 할 일을 찾지 못하며 텅빈 가정에 버림받은 느낌으로 불안에 젖어 지낸다. 삶이 고통 그 자체로 느끼고 있다.

1) 긍정적으로 시작하기

문제 상황 속에 있는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확대하고, 문제

를 어떻게 정의하고, 문제 상황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해결보다 문제의 중심부에서 맴도는 과정에 있다. 상담자는 이러한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도전을 주어야만 한다. 내담자와의 긍정적인 출발을 위해서 상담자는 자신의 위치를 내담자와 맞추도록 해야 하며, 부드럽구면서도 적극적인 말을 사용해야 한다. 내담자가 보고 행하고 설명하는 일들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나누어야만 한다. 내담자가 행한 작은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³⁶⁾ “잠을 자지 못했는데도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이세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상담실을 찾아오기 힘드실 텐데 이렇게 오신 것 보니 용기가 대단하세요.” 등의 긍정적 언어로 내담자를 지지하면서 출발하였다. 그동안 단혀 있던 마음에 긍정적 칭찬은 내담자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2) 목표 정하기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만 서술하기가 쉽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해결중심적 대화로 나아가게 만든다. 목표 설정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혹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직면하도록 만들어준다. 목표는 지나치게 큰 것보다는 내담자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작은 목표라도 성취할 수 있을 때 내담자는 희망의 감정을 내포하면서 변화를 위한 동기를 가지게 된다. 내담자의 생활의 한 부분에서의 작은 변화가 다른 측면의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을 파급효과(ripple effect)라고 부른다.³⁷⁾ 그리고 내담자에게 중요한 것을 목표로 할 수 있

36) Insoo, *Family Based Services*, 54.

37) Insoo, *Family Based Services*, 71.

고,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내담자가 비현실적이고 성취가 불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치료자는 내담자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조정을 해야만 한다. 위의 사례에서 내담자는 무엇보다 잠을 편히 잘 수 있기를 원했고, 또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여서 그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정하기로 하였다. 큰 것보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3) 해결지향의 질문과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활용을 통한 해결책 세우기

(1) 해결지향의 질문

해결중심치료의 핵심에는 언어의 질문 기법을 통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추구하도록 유도한다는 데 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해결지향의 질문에는 첫째, 예외질문 사용하기³⁸⁾가 있다. 모든 문제들에는 예외들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위에 이런 질문을 사용하게 된다. 예외 상황의 발견은 장차 더 큰 변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내담자에게 “불면의 고통에서 혹시 어느 날 잠을 잘 주무신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은 예외적인 상황을 더욱 확장하기 위한 접근이 되었다. 둘째, 기적질문 사용하기³⁹⁾는 내담자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게 하거나 자신의 삶을 보다 화려하게 그려 볼 수 있게 해 준다. 내담자에게 기적질문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내담자의 삶이 변화에 대한 약간의 희망이 있어야 하며 내담자에게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혹시 권사님, 기적이 생겼어요? 그래서 행복한 꿈을 꾸며 잠을 잘 주무신 일이 일어났다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하시겠어요?”, 내담자는 그런 질문을 받고 의아해 하다가 그러면 여

38) Walter & Peller, *Becoming Solution-Focused in Brief Therapy*, 154.

39) K. B. Insoo & S. D. Miller, *Working with the Problem Drinker—A Solution Focused Approach*, 가족치료연구모임 역, 『해결중심적단기가족치료』 (서울: 도서출판하나의학사, 1995), 134.

행을 하고 싶다고 했다.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셋째, 대처질문 사용하기는 내담자가 당하는 어려움에 공감할 뿐 아니라 동시에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어요?” 라는 질문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을 돌아볼 수 있게 하고, 더욱 인내하면서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준다. 이 질문은 문제에 압도되어 있는 내담자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의 강점을 일깨우고, 감정과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재확립하게 한다. 넷째, 척도질문 사용하기는 숫치를 통하여 내담자와 치료자 사이에 확신과 안전, 그리고 희망에 대하여 평가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척도질문은 숫자의 의미를 명료화시킴으로써 내담자의 자신감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질문이다. 내담자는 5회 상담을 받은 후에 척도 질문을 했을 때 숫자로 3에서 7까지 올라갔다고 고백하였다.

(2)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 활용

케리그마 언어사용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복음의 희락과 화평과 의를 맞출 수 있도록 내담자에게 전달되는 생명의 언어이다.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실존적 의미를 찾게 하려는 목표가 있다.

① 존재 언어 사용하기

인간의 소외와 갈등은 문제 상황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 문제 안에 함몰한 내담자는 심리적, 영적 상태에 더욱 다양한 방어기제와 왜곡된 행동을 만들어 내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⁴⁰⁾ 이런 경우에 내담자를 향한 존재론적 언어는 자신의 본질적인 상태를 반추하게 하고, 근원적인 자기 회복을 지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언어가 된다. “권사님, 남편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40) David G. Benner, *Counseling and the Human Predicament*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9), 71.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현재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감 언어 사용하기

내담자의 경험과 감정과 행동을 내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공감적 이해는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가 된다. 공감에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수용적 공감이고 또 하나는 참여적 공감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용적 공감이란 내담자의 경험과 감정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심리적인 공감에 초점이 있으며, 참여적 공감이란 내담자의 전인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며 상담자의 공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담자에게 흘러 들어가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전인 회복에 중점을 둔다.⁴¹⁾ 예수님은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민망히 여기시는 공감적 이해의 사역을 실천하셨다. 공감적 언어란 수용적인 사랑에 기초한 언어로서 내담자의 삶의 고통에 깊이 참여하려는 언어이며 내담자의 삶을 변화시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언어이다. “권사님, 남편을 주님께 먼저 보내고 혼자 적적하게 지내시기 참 힘드셨을거예요?”, “그래도 참 대단하세요. 힘든 시간을 지금까지 잘 참아오세요.”, “권사님의 힘든 시간 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해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워요.”

③ 용서 언어 사용하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시는 행위는 인간의 삶 속에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 용서는 고통이나 상실, 의무 같은 실재를 제거한다기보다 모든 실재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게 하고 그것들을 삶의 중심에서부터 분리시키는 일이다.⁴²⁾ 따라서 용서는 신앙인에게 중요한 현실이 되며 용서의 경험은 삶을 재평가하게 하고 재조정하게 하

41) 오성춘, “목회상담의 기초로서 예수님의 참여적 공감,” 282-283.

42) Benner, *Counseling and the Human Predicament*, 177.

는 능력이 있다. 용서를 통하여 마음의 닫힌 문이 열리고 깊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용서언어가 관계와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내담자는 남편에 대하여 아직도 서운한 마음, 해결되지 않는 분노, 죄책감, 안타까움 등을 품고 있다. “권사님, 먼저 남편의 입장을 생각해볼까요? 아내를 두고 먼저 가는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남편을 이해하게 되면 조금씩 용서의 마음도 생기게 되죠. 또 남편과 함께 행복했던 기억들을 모아볼까요?”, “이제 남편을 자유롭게 보내드리도록 해볼까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십자가의 용서가 권사님 마음에 깊이 와 닿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의 회기가 진행될수록 내담자는 문제에 함몰되어 있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남편을 서서히 떠나보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④ 사랑 언어 사용하기

자비와 사랑의 감정을 담은 사랑언어는 대화의 강력한 기법 가운데 하나이다. 타인을 수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사고와 감정이 가미된 사랑언어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언어가 된다.

사랑언어가 대인 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Gary Smalley와 John Trent는 사랑언어는 사람의 주의를 끌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사랑언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변화로 유도하고, 친밀감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게 해 준다고 하였다.⁴³⁾ 사랑언어는 의미있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권사님, 남편이 안계시지만 따뜻한 사랑의 말씀을 전해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을 다시 불러 보세요.”, “비록 남편이 떨어져 있지만, ‘여보 사랑해요’ 라고 해 보세요.” 내담자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으나 점진적인 개방된 상태에서 남편과의 영적인 소통을 나누는 듯한 언어사용은 내담자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 지평을 열게 해주었다.

43) Benner, *Counseling and the Human Predicament*, 21-27.

⑤ 은혜 언어 사용하기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순수하고 무한한 사랑이기도 하다. 은혜 언어를 사용하게 될 때 상담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수용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담자가 현재 상태에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여 생존의 의미를 확인하고 가치있는 존재로서 살아 가게 해준다.⁴⁴⁾ 은혜 언어를 사용하여 내담자의 불안과 고통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되고, 내담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허용성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권사님, 지금까지 함께 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있음이 믿어지세요?”, “주님 은혜로 권사님의 장래에 더 큰 평안과 행복이 찾아올거예요.” 내담자는 그동안 자신의 고통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미래를 닫고 살아왔으나 영적인 상태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나며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였다.

4) 치료효과의 유지 및 종결

케리그마 언어사용과 함께 단기적 치료과정에 참여한 내담자는 마음에 안정감을 되찾고 불면을 이겨낼 수 있었다. 문제는 그 효과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상담자와의 약속에 따라 내담자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며, 구역활동도 그동안 쉬었으나 다시 할 수 있게 구역장과의 연결을 하였다. 그리고 마음에 불안이나 우울감이 찾아오고 남편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힘들 때는 언제든지 다시 상담에 임하기로 하였다. 상담자도 추후에 몇 차례 사후 전화를 통하여 내담자의 생활을 점검할 수 있었다. 수 개월동안 내담자가 삶에 안정을 되찾고 교회생활을 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차적인 상담이 끝

44) Oden, *Kerygma and Counseling*, 79.

난 후에 내담자는 영적인 방향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생활을 회복하였고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나 분노, 아픔들도 점차적인 해결되어 갔다. 해결중심치료의 간단 명료성과 케리그마 언어의 활용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III. 닫는 글

언어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하여 절망에 빠져 있는 내담자를 희망의 언덕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은 상담자에게 무척이나 의미와 기쁨을 주는 일이다. 사람들이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회는 언어소통을 통하여 연결과 단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성장과 상처의 흔적을 남긴다. 유익한 언어활용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확장하고 가치와 의미를 남기지만 왜곡되고 억압적인 언어사용은 갈등과 단절 뿐 아니라 병리적인 성격을 파생하기도 한다. 오늘 현대 사회는 언어의 오용과 남용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사회현상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본 소고에서는 언어활용의 다양성 가운데 복음적 언어인 케리그마 언어의 활용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케리그마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여하는 생명의 언어이며,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비하는 살아있는 언어이다.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케리그마 언어를 치유와 회복의 언어인 상담적 언어로 적용하기 위해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를 활용하였다. 특히 언어의 간결성으로 효과를 드러내는 해결중심치료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복음과 연결하려고 시도하였다. 해결중심치료는 전형적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케 하려는 일반적인 이론이다. 해결중심치료 이론 위에 복음적 도구를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과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양자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였다. 해결중심치료는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인간의 건강성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케리그마 언어는 하나님과의 접촉과 관계회복을 통하여 전인적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한다. 언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이 인간다움을 회복하도록 도구적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볼 때, 가능하면 언어의 선의적 기능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어의 활용성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폭넓은 사용기법과 도구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상담적 자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으나 내담자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복음적 능력으로 조화있게 발전시키는 작업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더욱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해결중심치료는 내담자의 장점이나 내담자중심의 건강성에 초점을 맞추어 가면서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반면에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를 활용할 때 내담자를 존중하지만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죄성이나 왜곡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내비추어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양자의 관점이 충돌할 수 있지만 케리그마에 담긴 은혜의 측면을 통하여 적절하게 잘 다룰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상담자의 관용과 지혜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한다. 상담적 케리그마 언어의 다양한 활용을 통하여 기독교적 관점에서 내담자를 돕는 유용한 방안들이 끊임없이 도출되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진우. 『인간과 언어』. 서울: 집문당, 1996.
- 박운만. 『신약성경 언어의 의사소통기술』.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13.
- 성종현. 『신약총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2.
- 오성춘. “목회상담의 기초로서 예수님의 참여적 공감”.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와 신학』 제22집(1991).
- 이규호. 『말의 힘』. 서울: 제일출판사, 1985.
- 이철수 · 김준기. 『언어와 언어학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000.
- 임요한. 『구약주해와 텍스트언어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 Benner, D. G. *Counseling and the Human Predicament*.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9.
- Brown, M. L. *Israel's Divine Healer*. 김진섭 역. 『구약의 치유신학』.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0.
- Couture, P. D. & R. J. Hunter. *Pastoral Care and Social Conflict*.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5.
- Daniels, M. *Benedictine Roots in the Development of Deaf Education: Listening with the Heart*. Westport, CT.: Bergin and Garvey, 1997.
- Dejong, P. & K. B. Insoo. *Interviewing for Solutions*. 허남순 · 노혜련 역. 『해결을 위한 면접』. 서울: 학문사, 2000.
- Farb, P. *Word Play*. 이기동 외 공역. 『말 그 모습과 쓰임』. 서울: 한국문화사, 1997.
- Friedman, S. *The New Language of Chang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3.
- Gratton, C. *The Art of Spiritual Guidance*. New York: Crossroad, 1997.
- Hunsinger, D. D. *Theology & Pastoral Counseling*.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Co, 1995.
- Insoo, K. B. *Family-Based Services: A Solution-Focused Approach*. New York: W. W. Norton Company, 1994.
- Insoo, K. B. & S. D. Miller. *Working with the Problem Drinker—A Solution Focused Approach*. 가족치료연구모임 역. 『해결중심적단기가족치

- 료』. 서울: 도서출판하나의학사, 1995.
- Israel, M. *The Sprit of Counsel*. Wilton, CT.: Morehouse-Barlow Co., 1983.
- Lester, A. D. *Hope in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신현복 역. 『희망의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 Meninger, W. A. *The Process of Forgiveness*. New York: The Continuum Publishing Company, 1996.
- Miller, G. *Becoming Miracle Workers*. New York: Aldine De Gruyter, 1997.
- Myers, G. E. & M. T. Myers. *Dynamics of Human Communication*. 임철성 역.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서울: 집문당, 1997.
- Oden, T. C. *Kerygma and Counseling*. 이기춘 · 김성민 역. 『케리그마와 상담』. 서울: 전망사, 1983.
- Post, S. G. *Spheres of Love*. Dallas, TX.: S.M.U. Press, 1994.
- Reboul, O. *Langage et Ideologie*. 홍재성 · 권오룡 역. 『언어와 이데올로기』. 서울: 역사비평사, 1994.
- Schultze, Quentin J. *Communicating for Life*.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0.
- Selekman, M. D. *Pathways to Chang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3.
- Walter, J. S. & J. F. Peller. *Becoming Solution-Focused in Brief Therapy*. 가족치료연구모임 역. 『단기 가족치료- 해결중심으로 되어가기』. 서울: 도서출판 하나의학사, 1996.
- Zeig, J. K. & S. G. Gilligan. *Brief Therapy-Myths, Methods, and Metaphors*. New York.: Brunner /Mazel Publishers, 1990.

【 Abstract 】

Application of Solution-Focused Therapy through Kerygmatic Language

Myoung Soo Chang

Baekseok University

People use language to make relationships and influence the lives of others. Language represents human character. It has deep relevance with the interpersonal relations and their development. Human language also has the power to stimulate conflicts and create scars. Language enables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o perform their roles in society. In many cases, the psychological problems of people are caused by language so that the effective use of language would have a huge influence on the health and the well-being of individuals and families alike.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holistic growth of a client by properly leveraging language kerygmatically and relating it to solving-focused therapy. On the premise that a whole growth of the individual would be completed by not only maintaining psychological health but also a spiritual meeting with Jesus Christ, this study focuses on using the counselling kerygmatic language to solve the client's problems. Although there are various approaches to solve problems and mature, the solving-focused therapy is a remarkable way of Christian counselling that has the potential to develop the evangelical language and also use concise language. It is the task of a counselor to develop therapeutic language, facilitating the starting point of counseling ministry. This study hopes to be that starting point, making the holistic growth of a client through the counseling approach of kerygmatic language.

Key words: language function, kerygmatic language, solution-focused therapy, counseling language, Christian counseling